



스위스정부관광청, 부산과 경주에서 세일즈 워크숍 진행.

부산 경남권 여행사 만나 워크숍 치르고 천년고도의 고즈넉함에 반한 스위스 파트너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지난 8월 20일(목) 스위스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파크하얏트 부산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 여행사 4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013년 8월 처음 개최한 부산 워크숍보다 한층 더 규모 있게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여행사 담당자들의 관광지역 다각화 및 신상품 개발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부산의 아이엠투어 최민경 팀장은 "부산 경남지역 여행 수요가 지방 여행사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서비스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발빠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인데, 현지 관광청과의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스위스 현지 관광청 관계자들은 경주 서악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에서 초청한 13개 여행사 및 랜드사와 1:1 세일즈 미팅을 가졌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자 문화재로 지정된 서악서원에서 도포와 갓을 착용하고 좌식 탁자에 앉아 미팅을 가지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세일즈 미팅 후 8월 21일(금)까지 1박 2일간 이어진 경주 행사에서, 안압지, 불국사, 천마총 등 경주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고 궁중요리를 체험하며 스위스 현지 파트너들과 한국 여행사간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스위스정부관광청 김지인 소장은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여행 인프라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현실을 감안했고, 항상 짧은 시간 동안 서울에만 머무르던 스위스 파트너들에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이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를 보여 주고자 경주에서 세일즈 행사를 진행했다"며 스위스인은 물론 한국인들도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했다.

거의 10년째 매년 서울을 찾고 있는 루체른 관광청의 마크 마이어(Mark Meier)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아주 짧게 목어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는데,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과 경주 등 다양한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참 반갑다. 한국 사람들의 수줍으면서도 열정적인 성격처럼 한국의 풍경과 문화도 다채롭다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열차 및 빙하특급(Glacier Express), 루체른 유람선(Lake Luzern Navigation Company), 리기산(Mount Rigi Peninsula), 쉴트호른(Schilthorn),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Swiss Travel System), 레일유럽(Rail Europe), 티틀리스(Titlis) 케이블카 및 호텔, 취리히(Zürich)

Switzerland Tourism.



관광청, 루체른 호수 지역(Lake Luzern) 관광청, 상트 갈렌(St. Gallen) 및 콘스탄스 호수(Lake Constance) 호수 지역 관광청을 포함, 10 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